**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**

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은 너도밤나무 원생림과 광활한 식림지라는 환경사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. 아키타현은 굉장히 귀중한 삼나무 품종인 아키타 삼나무로 유명하며, 벌목회사는 시라카미 산지에서 수 세기 동안 활동해왔다. 제2차 세계대전 후 대규모 삼림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이 지역 숲 대부분이 삼나무로 바뀌었지만,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 대부분은 외진 곳이라는 입지적 이유로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
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 주변에 있는 너도밤나무의 상당수는 70여 년 전에 삼나무로 대체되었다. 그러나 그 후 식림지는 간헐적으로만 유지되었으며, 너도밤나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. 벌목을 하지 않은 숲속 더 깊숙한 곳에는 너도밤나무 원생림이 있는데, 이곳에는 시라카미 산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너도밤나무 노목이 있다.

식림과 벌목에 의해 자연의 천이가 방해받지 않은 너도밤나무 원생림에는 세대가 다른 많은 너도밤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다. 마르고 썩은 노목은 영양분이 풍부한 땅을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어린 나무들은 수 세기에 걸쳐 일정한 주기로 자라난다. 이런 너도밤나무 숲에서는 일본의 자연 풍경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. 스튜디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영화 ‘모노노케 히메’를 제작할 때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을 시각적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했다.